

어촌체험관광 선진지 시찰에서 얻은 교훈

— 이제는 운영이 중심이다 —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한국의 어촌체험 마을 운영 관계자들이 일본 어촌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번 시찰에는 어촌체험마을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직원 등 총 17명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촌관광 실태를 비교 점검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일본의 어촌관광 현장을 돌아보고 현지 어업인들을 직접 만났던 시찰단은 처음엔 일면 자신감을 보였다.

민박집은 노후하여 화장실과 세면장을 공동으로 사용해야했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별다른 체험도구도 없었다.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사람도 없었고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정부가 체험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지원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것이 더 나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 보았을 때 역시 배울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 시찰단의 중론이었다.

우리는 어촌체험관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 채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난 이들은 2대가 힘을 합쳐 40년을 어촌체험관광과 연계한 민박을 운영해 오는 어업인이 있기도 했으며 후릿그물이란 체험프로그램 한 가지만으로 35년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도 있었다.

이들의 운영 노하우는 대단해 보였다.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표준화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체험객들에게 현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게 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어촌체험관광의 핵심을 잘 녹여내는 능력도 뛰어나

보였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이 그들의 운영 노하우로 꼽을 수 있었다.

어업인들이 생업에 임하는 그대로의 시설을 활용하여 체험토록 안내하고 관광객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였다. 그렇다고 사구려 프로그램으로 취급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몸에 밴 친절도 그들의 운영 방식이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어촌주민들은 정부 정책자금을 통한 시설 유지에 적극적이었다. “무슨 시설만 있으면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푸념도 있었고 향후에 어떻게 되었던 일단 받아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도 많았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어촌관광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한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그 시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일본은 시설 유치보다는 운영 중심의, 그것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어업인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도 이제는 스스로 참여하는 운영 중심의 어촌체험 관광마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업인들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험객 접대와 수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어촌마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에서 어업인들이 취약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여 주면 금상첨화다.

물론 일본의 어촌도 고령화와 공동화로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어촌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